

해남군 체감형 경제활성화 대책 '속도'

재정 65% 3363억 상반기 집행

영농기 농가 농자재 반값 지원

소상공인 중심 상권 활성화 시책

해남군이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해남군은 최근 정례회의를 갖고 각 실과소, 읍면별 발굴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논의하고, 민간의 경기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조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반기 신속집행을 대상액의 65%인 3363억원 까지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할 방침이다.

침이다.

군은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전국 군단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민간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영농기에 접어들어 농가들에는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산물 생산물 증가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농자재 구입시 50%를 군비로 지원하게 된다.

농업정책자금 이차차액 지원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상가와 숙박시설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도 추진한다.

사계절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하계 전지훈련단 유치와 스포츠대회 개최가 이어진 가운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공직자들이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한다. 부서별로 청년가게 이용하기,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활성화, 전통시장 장보기, 숨겨진 맛집 찾아 SNS 홍보하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체감형 경제활동에 적극 나선다.

전통시장 등 원도심 상권활성화와 해남사랑상품권 할인판매 확대,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 시책도 추진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분야별 발굴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활력있는 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HD현대삼호 기술교육원 총동문회 '호프 데이'

임직원들 무더위 극복 응원

HD현대삼호 기술교육원 총동문회가 최근 '여름나기 호프 데이'를 열어 임직원들의 무더위 극복을 응원했다.

<사진>

HD현대삼호 한마음회관 광장에서 열린 호프 데이(HOF DAY) 행사에는 총동문회 회원과 임직원, 사우 가족 등이 초청됐다.

HD현대삼호 기술교육원 총동문회의 여름나기 호프 데이 행사는 올해로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신현대 HD현대삼호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임직원들과 퇴근 시간 맥주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행사장에서는 팝밴드 '파인'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돋웠다.

전남석 HD현대삼호 기술교육원 총동문회 회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호프 데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올해는 회사의 공연 지원으로 행사가 더욱 알차게 꾸며진 것 같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친환경 선박산업 육성, 지역기업과 힘 모은다

HD현대삼호·대한조선 등 업무협약

목포시가 차세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을 위해 HD현대삼호, 대한조선 등 지역기업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목포시는 지난 17일 친환경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산업 육성과 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진 목포부시장,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 배정철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김현규 HD현대삼호 부사장, 이상철 대한조선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지역 조선산업 고도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친환경 무탄소 연료 선박 산업 육성' '친환경 선박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공동연구' '기술 성능평가·공인시험을 위한 장비 공동활용' 등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선정된 산업부 공모사업 '친환경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장치·시스템 실증 기반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목포시와 전남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HD현대삼호 등이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협약을 맺은 기관·기업들은 영세한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신산업 전환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기술 보급과 확산 효과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 조선산업을 활성화할 목표를 세웠다.

박창환 목포부시장은 "친환경 선박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목포시는 이 협약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지역이 명실공히 친환경 조선-해운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완도군, 서울서 '황칠 주산지' 명성 알린다

20~26일 한국미술관서 기획전

완도군이 '황칠 주산지'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전시를 연다.

완도군은 이 기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세계 보물 K-황칠 대전'이라는 기획전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황칠을 활용한 도자기와 서예 작품, 불화 등 공예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범종 배철지, 난곡 안금환, 송명 김성태 명장과 현소화 이희경 등 30여 작가가 참여한다. 전통 무

용과 소리 공연도 진행된다.

황칠 공예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열리게 됐다. 개막식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황칠은 서남해안에 자생하는 고유종으로, 황금빛 비색이 특징이다. 내열·내구성이 강해 예부터 특수 도료로 사용돼왔다. 조선왕조실록과 삼국사기 등에도 황칠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신라 시대에는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교역 물품 중 최고로 꼽혀 황칠이 금보다 비싸게 거래됐다.

완도는 황칠의 주산지로 440여 농가가 1500ha 규모에서 황칠나무 200만그루를 재배하고 있다. 상왕봉 등지에는 20만 그루의 황칠 천연림이 꾸러졌다.

완도군은 특화 작목인 완도 황칠에 차별화를 두고자 황칠의 나무와 잎의 원산지가 완도임을 증명하는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을 등록했다. 또 황칠을 원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그동안 연구를 통해 황칠 도료를 복원했으며, 황칠이 다양한 예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며 "이번 공예전을 통해 서취칠의 기원과 효능이 알려져 황칠의 가치와 우수성이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산후 조리비·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후 회복 1인 50만원까지 지급

영광군이 이달부터 지역민을 위해 산후 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시작한다.

산후 조리비 지원은 올해 7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받을 수 있다. 산모 1인당 50만원까지 실제 사용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출산 뒤 6개월 안에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산후 진료·산후 약제비, 산후 운동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영광군은 12개월 이하 자녀와 보호자가 영광군에 함께 전입하면 양육비를 지원한다. 다른

지역에서 출생 신고를 한 뒤 전입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전입신고 뒤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양육비는 전입 신고 일 다음 달부터 남은 개월에 맞춰 분할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산후 조리비 지원과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전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w@kwangju.co.kr

신안군 암태면 임대농장 운영 청년농부 모집

신안군이 오는 28일까지 암태면에 있는 임대농장(사진)을 운영할 청년 농부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임대농장은 청년 농업인의 경영 실습을 위해 스마트 온실로 꾸러졌다. 이곳에서 청년 농부들은 농장 운영을 경험하고 기술을 쌓을 수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암태면과 팔금면 등지에 2.7ha 규모 스마트 온실을 조성했다. 16명의 청년이 3년간 농장을 빌려 딸기, 망고, 커피(바나나) 재배를 배웠다. 이번에 선정되는 임차인은 2명으로,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이다. 영농 경력 3년 이하, 시골 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 농업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2449㎡ 스마트 온실을 3년간 빌려 영농 경험을 쌓게 된다. 1인당 1225㎡ 농장



을 빌려 일 년에 19만8850원의 임차료를 내면 된다. 임차인들은 1년 차 136시간, 2~3년 차 매년 116시간 이상 영농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안군은 임대농장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